



한일경제전쟁 제주기업 피해 최소화 ‘부심’

도, ‘백색국가’ 배제 따른
관계기관 대책회의 열어
무역분쟁 대비 TF·신고센터
운영 등 단계적 대응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배제 조치에 따른 제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앞으로 무역분쟁 확대에 대비해 수출규제 대응 전담 TF팀 및 제주기업 일본수출규제 애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집중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수출기업에 대상으로 대일본 수출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본 통상사무소를 통해 일본측 바이어에 대한 동향 등을 수시 파악한 결과 별다른 변화와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일본 백색국가 한국배제 조치에 따른 제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수출기업·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다만 향후 한일 양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수입 규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제주도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전담 TF팀과 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업무공조체계를 강화해 제주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더불어 동경사무소를 활용한 현장비즈니스 밀착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체계 개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을 강력 추진해 제주기업의 일본 수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통상거점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장기과제로 제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한 경제체질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수출기업·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일본 무역분쟁에 따른 제주수출기업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수출다변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세제 지원 방안, 일본 관광객 동향 및 대응계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신경제지도 연결 제주형 물류단지 조성을”

어제 국회서 정책 세미나
오영훈 의원실·JDC 주최
제주해양물류체계 개선 주제
“신항, 규모 아닌 질 우선
친환경 항만으로 만들어야”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제주해양물류체계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부의 제주신항만 건설 계획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정책 추진을 제주가 국제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최한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제주 해양물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오영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 해수부가 제주신항만 고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족함이 많다. 크루즈 여객선 선적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가장 시급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공개하면서 북방과 남방 관련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 축으로 제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물류 거점으로 제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대립 JDC 이사장도 축사에서 “제주의 경쟁력은 해양, 물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방 경제 출발점으로서의 제주, 남방정책의 교두보로서의 제주라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그냥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어 국토연결망에서 소외된 제주도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연구원 임영태 박사(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제주 물류 플랫폼 구축 구상’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제주형 물류단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임 박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계속적으로 수정, 발전돼야 하지만 제주에서 자발적이고 선독적인 프로젝트가 없으면 요원하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의 연계는 한서해벨트 연계이고, 이는 물류 산업 축이므로, 제주의 물류 산업 육성해서 연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물류단지개발법에 의해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법정 물류단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노후화된 시설을 복합 개발을 해서 물류, 문화, 여가 등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도시점단물류단지 같은 제주형 물류단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제주신항만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해양물류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주요 항만 지역의 대기오염을 언급하면서 “제주도는 다른 곳보다 철두철미하게 친환경 항만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규모가 아니라 질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물류체계 역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본격

도, 제6차 시민연구단 출범
올해 연말까지 권고안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 위한 시민연구단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은 제주 에너지공사가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17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공모를 통

해 시민연구단 18명을 선정, 지난달 27일 위촉식을 가졌다.

공모에는 44명이 신청해 약 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시민연구단은 시민참여자문위원회를 통해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발됐다.

시민연구단은 올 12월까지 10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도의 에너지 미래에 대해 조사, 토론하며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11월에는 100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두차례 열릴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플라스틱 환경오염 해결 ‘소셜벤처’ 육성

도개발공사 아이디어 공모전
25일까지 접수… 리빙랩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벤처 육성 지원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플라스틱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해 우수한 소셜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5회 JPDC 창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내가Green제주 소셜리빙랩’을 제주도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플라스틱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창업 또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싶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greenjeju)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생활 속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해법을 도출하는 리빙랩(Living-Lab)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 평가위원의 심사와 국민참여단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위 12개 팀을 선발한 뒤 ‘실험’, ‘개발’, ‘사업화’ 단계를 거쳐 소셜벤처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리빙랩 참가팀에게는 단계별 심사를 통해 최대 6300만원의 지원하게 되며, 아이디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창업 특강,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최종 선정 공모작에 대해서는 창업 및 활동지원자금과 소셜벤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사업화신속지원 사업 도내 17개 기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사업에 도내 17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화신속지원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 이외의 우수 아이디어를 조기에 사업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에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공모를 거쳐 지난 7월 도내기업 17곳을 선정하고, 예산 6억1500만원(국비 4억8200만원, 도

비 1억3300만원)을 투입해 기업 당 최대 3000만원의 마케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제품홍보와 수출상담, 국내외 마케팅과 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핵심 분야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는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을 통해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64-720-3055)

조상윤기자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 쇼 날 FRP 페 인 트 총 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그랜드보청기

여름시즌 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참충돌 혼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60% 파격 할인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리실생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증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